

# 필리핀 기혼 여성의 남아선호와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n Preference and Related Factors among Married  
Women in Metro Manila, Philippines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김 용 미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Assc. Professor : Yongmi Kim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논의와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of son preference and the related factors among married women in Metro Manila, Philippines and to compare between Filipino women and Chinese-Filipino women in many respects. Local schools were contacted for recruitment of participants (n=206).

The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a half of the respondents (54.5%) preferred a son for the first child. On the other hand, almost a half (44.7%) preferred a daughter for the second child. It is interesting that almost a third of married women showed an equal preference between a son and a daughter for the first child (34.2%) and the second child (31.2%).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on preference was most strongly related to women's patriarchal attitude and orientation, and secondly to a strong son preference for the first child.

Two groups of women, Filipino and Chinese-Filipino, were compared in the level of parental support and expectation for sons and daughters, perception of women's position in family and society, patriarchal attitudes and orientation, sex

\* 이 연구는 1997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preference for the first and the second child, reasons of son preferenc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Filipino women tended to prefer a daughter for the second child much more and to perceive women's position much higher than Chinese-Filipino women. Filipino mothers showed an equal level of support and expectations for sons and daughters much more than Chinese groups. For the reasons of son preference, it was notable that Filipino women tended to rely on sons in old age much more than Chinese women. On the other hand, Chinese moth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tinuation in family name much more than Filipino counterpar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ree factors were found strong enough to draw attention. Daughter preference, high position of women, and equal support for sons and daughters appeared to be closely related in a meaningful way. Future studies need to focus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factors in depth. Three factors suggest some important direction that a strong son preference country like Korea need to head forward in a near future.

## I. 서론

남아 선호 현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자녀의 특정한 성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를 연구하는 것은 인구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아동학, 가족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고, 이론과 실제의 양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남아선호가 강한 나라로서 중국, 인도, 한국 등을 꼽을 수 있다(이하 중국은 중국 본토, 한국은 남한을 가르킨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근래에 출산율이 낮아진 가운데서 남아선호도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 두 나라는 남아선호와 소가족집단유지의 두 가지 규준을 지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인구학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녀의 성비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결과 남녀아의 출생 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의 수)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박 채빈과 조 남훈, 1984 ; Cardarelli, 1996 ; Goodkind, 1996 ; Lee, 1995 ; Park & Cho, 1995 ; Pong, 1994).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체적으로 1985년경 이후부터 남녀 출생 성비의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오히려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시기 이전에는 세계 평균성비인 106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1986년 생부터, 한국의 경우에는 1985년 생부터 성비가 왜곡되고 있다(Park & Cho, 1995). 출생 성비의 불균형은 인구학적, 사회적, 의료보건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그 가운데 사회적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출생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은 이들이 성장한 후 결혼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신부감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농촌 지역의 신부 부족 사태는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지 오래이다. 1985년 생 남아들이 배우자 선택의 시점에 이르게 되는 2010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신부 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개인의 좌절과 분노를 넘어서 사회적 공격성, 성범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아 선호와 이로 인한 성비의 왜곡 현상은 문제

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성비 왜곡에 대해서 거시적인 접근은 다소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가족 수준에서 갖는 시사점은 거의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족의 크기와 성비의 뚜렷한 반비례 관계, 출생 순위에 따라 출생 성비가 급증하는 현상, 한국과 같은 저출산국가에서 막내 자녀의 성비가 극도로 치솟는 현상 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Park & Cho, 1995). 예를 들면 성비의 불균형이 가족 크기와 출생 순위의 측면에서 각각 남아와 여아의 가치와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새로운 연구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남아 선호와 이로 인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남아 선호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은 조선시대 후기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시대에는 딸은 물론 사위와 외손자까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고 재산상속도 남녀균분이 이루어졌다(최 재석, 1983).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도 이어져 내려와 재산 상속과 제사 봉양에 딸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 흥탁, 1986). 그러나 조선시대 숙종 이후 유교의 확산과 급격한 인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면서 남존 여비 및 남아 선호 사상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서 남아 선호의 주된 이유는 노후에 의지할 대상으로서 아들을 선호한 것이 으뜸이며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선호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특히 중동과 동남 아시아권에 속해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Williamson, 1976), 같은 동남 아시아권에 속하는 나라 가운데 예외인 나라가 있다. Lee(1995)는 자녀의 성선호 태도를 기준으로 볼 때 남아 선호가 높은 나라로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과 함께 시리아, 요르단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선호하는 국가로서 케

냐,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의 남미 국가와 함께 아시아 국가로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꼽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선호가 동등한 나라로 알려진 필리핀을 선정하여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남아 선호의 수준을 살펴보고 관련 변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로, 기혼 여성 가운데 필리핀 여성과 중국계 필리핀 여성 집단을 비교하여 남아 선호의 수준과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리핀은 우리 나라와 같이 동남 아시아권에 속한 나라로서 정치적·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이 유교와 가부장적 전통이 깊이 뿌리 박힌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스페인,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東洋의 이단지”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동남아권에서는 색다른 사회문화적 전통을 발달시켜왔다. 예를 들면, 국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신봉하고 학교, 관공서, 일반인 가운데서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이다(Agoncillo & Guerrero, 1971; Castelo, 1977; Chatfield, 1961; Samonte, 1989).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필리핀이 서구 열강의 통치를 받기 이전인 16세기 초반까지 필리핀 여성은 남성과 대등하게 간주되었다(Samonte, 1989).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남아 선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필리핀 기혼 여성의 남아 선호 수준과 관련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와 교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로, 필리핀은 Malay계 원주민인 필리핀인과 몇몇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소수 민족 가운데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단연 중국계를 꼽을 수 있다. 홍콩과 대만을 포함하여 동남 아시아에 살고 있는 중국인(화교) 집단은 1977년 현재 12억의 중국본토를 제외하고 약 5천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집단이다. 이 가운데 필리핀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구는 약 120만명으로서 필

리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동아일보, 1997, 7). 그러나 중국계 필리핀인들은 강한 애착을 가지고 고유의 문화와 전통, 언어, 풍습 등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들의 강한 가족주의와 남아 선호에 대한 가치관도 대단히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astello, 1981).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들·딸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비슷한 필리핀인과 남아 선호가 강한 중국계 필리핀인 집단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남아선호가 높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 II. 선행 연구 고찰

필리핀은 동남 아시아 국가로서는 드물게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선호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Lee, 1995),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필리핀 사회에서 남아 선호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필리핀 기혼여성의 자녀 성 선호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1986년에 출간된 Concepcion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Concepcion은 1983년 필리핀 인구조사(The 1983 National Demographic Survey) 결과를 토대로 기혼 부인들의 첫 자녀의 성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아들·딸을 동등하게 선호하는 부인이 37.2%로 가장 많았고, 아들 선호 집단이 35.0%, 딸 선호 집단이 2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아 선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활발한 나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동남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과 한국 등에 집중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의 특정한 성을 선호하는 것은 자녀를 차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표현된다(Bennett, 1983 ; Williamson, 1976).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차별을 나타내는 최신의 사례가 출생 성비의 증가에서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이것이 한 자녀 갖기 정책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모들은 딸을 비밀리에 양녀로 보내거나 출생기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여아살해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의 태아 성 감별 기술의 발달도 한 몫을 하

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가족 크기의 감소현상(소집단화)이 결합하여 여자 태아를 과도하게 낙태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Goodkind, 1996).

한국과 중국은 높은 남아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감소하여 인구대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높은 남아 선호와 가족 크기의 감소라는 두가지 특징이 출생 성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가족 크기가 감소하면 남아 선호로 인해 사람들은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기술이나 다른 방법(예를 들어 여아를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극단적인 경우 영아살해 등)을 사용하여 자녀의 성비를 왜곡시키게 된다(Park & Cho, 1995). 실제로 중국은 한 자녀 갖기 정책과 남아의 가계 계승이라는 문화적 선호의 결과 극심한 성비 왜곡에 시달리고 있다. Li(1995)는 중국의 한 자녀 갖기정책이 1979-1988년 사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했다. 이 정책은 노동자 등록증(Worker registration)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에 한해 효과가 있었는데 이들은 추척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대다수의 농촌 여성은 높은 남아 선호로 인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교육 수준, 도시화의 정도, 인구 정책의 강도보다 더 강력한 요인으로 둘째, 셋째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ton, Gu, Liu, & McDaniel (1997)은 1990년에 실시된 중국 인구 조사 자료의 1%를 추출해서 중국 농촌 지역의 인구 성비를 조사했다. 출생 성비의 편차는 남아 선호도의 편차와 상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출생 성비가 관찰되었다. 또한 Cardarelli(1996)에 의하면 1996년 현재 중국에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수가 3,600만 명 초과했고, 1999년 말까지는 7,000만 명의 남초 현상이 예측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5년 생부터 출생 성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데, 1990년 당시 5세 이하 모든 연령층의 성비가 109이상 112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1992). 여기에서는 거주지 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 지역의 성비가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1985년에 대구와 부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

해 높은 성비를 보였고, 1990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끌고루 높은 성비를 보였다. 출생 성비가 꾸준히 110을 넘어선 것은 대도시의 경우 1985년 이후, 중소 도시의 경우 1986년 이후, 농촌 지역의 경우 1988년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Park & Cho, 1995).

성비 불균형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Park & Cho(1995)는 부정적 측면과 아울러 긍정적 측면도 몇가지 꼽고 있다. 결혼시장에서 신부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성범죄와 음란물의 증가, 동성애나 일처다부제의 증가도 예측된다.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결국은 출생 성비가 균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녀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볼 때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가 많아지게 되면 노년기에 고독감이 시달리는 미망인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중국인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높은 남아 선호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ong(1994)은 1988년에 시행된 제 2차 말레이시아 가족생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개 인종집단(말레이족, 인도계, 중국계) 내의 자녀의 성선호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연구했다. 말레이족과 인도계는 뚜렷한 성선호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중국계 부모들은 강한 남아 선호도를 보였다. 중국인들은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아들이 없을 경우 출산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높았고, 중국인의 남아 선호는 1970년 이후 더욱 높아졌다.

동남아 국가가 아닌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 가운데 최근에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고찰해 보겠다. 1996년 2월에 실시된 Gallup여론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여아에 비해 남아를 10% 정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wport, 1996). 남아 선호는 고연령층, 백인 계층보다는 저연령층, 유색 인종 사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유색인종 중의 하나인 Hispanic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뚜렷한 남아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Unger & Molina, 1997). 미국 LA지역 산부인과에서 실시된 연구에는 18-50세 사

이 432명의 Hispanic 여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평균 2.8명의 남아를 원하는 반면 단지 0.1명의 여아를 원한다고 답했다. 남아 선호도가 높은 여성들은 연령이 30세 이상, 교육수준이 낮고(8년이하), 배우자가 없으며, 영어보다 Spanish를 사용하고, 미국 밖에서 태어났으며, 대가족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Freud는 모성동기 가설을 내세워 여자는 해부학적, 심리적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동기에서 어머니가 되고자 하며 이러한 동기가 아들을 갖고자하는 욕망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Teichman, Rabinovitz, & Rabinovitz(1992)는 각각 첫 번째, 세 번째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성에 대한 선호도와 초음파 검사 후와 출산 직후 태아의 성을 알았을 때 감정적 반응(걱정, 우울)에 대해 연구했다. 초산부는 초음파 검사 후 우울증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출산 후에는 걱정과 우울증이 현저하게 고조되었다. 세 번째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후 걱정과 우울증이 가장 높았고, 특히 이미 두 아들을 둔 상태에서 딸을 희망했으나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임신부들이 가장 극심한 걱정과 우울증을 보였다. 연구 결과 Freud의 모성동기 가설이 의문시 되었으며, 자녀의 성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정서적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 요인으로 추측되었다.

태아의 성에 대한 부모의 선호 태도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양육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Stattin과 Klackenber-Larsson(1991)은 1955-58년 사이에 출산한 어머니들 가운데 태아의 성에 대해 부모의 선호가 뚜렷했던 122명의 남아와 90명의 여아를 장기적 연구에 포함시켜 18년 동안 매년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들이 21-25세가 되었을 때 면접을 실시했다. 자녀의 성이 부모가 원하던 성이 아닌 경우 부모는 자녀와 놀이 시간이 적었고, 자녀와 문제가 더 많았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장기적으로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부녀관계가 더욱 나쁜 것으로 보고 되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거주하는 206명의 기혼 여성이었다. 이 가운데 120명은 필리핀 여성이었고 86명은 중국계 필리핀 여성이었다. 필리핀 여성 집단에게 처음에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6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74%). 이 가운데 응답이 많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120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중국계 집단은 처음에 100부를 배부한 결과 94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4%), 위와 같은 이유로 8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86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 도구

이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설문지는 인구학적 배경,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 자녀의 성 선호에 관한 문항, 남아 선호를 측정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먼저 연구자에 의해 영어로 만들어졌으며,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능통한 조교 2명이 타갈로그어로 번역하였다. 조교 두 사람의 번역은 90% 이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번역을 비교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조교가 함께 토론을 벌인 후 의견의 일치를 보아 적절한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연구 자료는 1996년 10월~12월 사이에 수집되었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를 탐색하여 필리핀계 학생 중심의 학교 1곳과 중국계 인구 거주 지역의 학교 1곳을 접촉하였다. 학생들에게 각각 영어(중국계 인구)와 타갈로그어(필리핀계 인

구)로 준비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어머니께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소수의 학생은 어머니가 아닌 이웃의 기혼여성에게 응답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수일 내에 담임교사에게 가져온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중다 회귀분석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 Ⅳ. 결과 및 해석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 대상자는 120명의 필리핀 기혼 여성(58.3%)과 86명의 중국계 필리핀 기혼 여성(41.7%)으로서 주요한 인구학적 배경 변인은 두 집단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나이는 평균 38.97세이고 대다수(72.6%)가 천주교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수는 평균 3.29명이며 이 가운데 아들은 평균 1.68명이고 딸은 평균 1.69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의 아들·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2. 남아 선호도의 측정 결과

남아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7문항으로 구성된 Son Preference Scale (이하 SPS라 칭함)이 사용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측정한 결과 .78의 값을 얻었고 Guttman spilt-half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66의 값을 얻었다. 다음으로 이 도구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Varimax 회전의 결과 2개의 요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인 1은 부부의 결혼유대를 강화하고 노년기 의탁을 위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현실적, 실리적 이유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요인 2는 가문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남아를 출산해야 한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있다. 요인 분석의 결과 최종적으로 SPS에 6개의 문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1〉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n	%
Ethnic group	Filipino	120	58.3
	Chinese	86	41.7
Education	No education	1	5
	Elementary	9	4.8
	Secondary	22	1.7
	College	134	71.3
	Postgraduate	22	11.7
Religion	Catholic	146	72.6
	Philippine Independent	12	6.0
	Protestant	24	11.9
	Others	19	9.5
Ethnic origin of father	Filipino	116	57.1
	Chinese	87	42.9
Ethnic origin of mother	Filipino	127	63.8
	Chinese	69	34.7
	Others	3	1.5
Own income	Yes	120	62.5
	No	72	37.5
Family income	< P 5,000	23	3.9
	P 5,001-10,000	29	17.5
	P 10,001-15,000	39	23.5
	P 15,001-20,000	14	8.5
	P 20,001-30,000	23	13.9
	P 30,001-50,000	23	13.9
	> P 50,001	15	9.0
Number of children at the present	1	13	6.8
	2	41	21.5
	3	58	30.4
	4	48	25.1
	5	23	12.0
	6	4	2.1
	7	4	2.1
Number of son at the present	0	16	9.0
	1	62	34.8
	2	70	39.3
	3	25	14.0
	4	4	2.2
Number of daughter at the present	0	18	10.1
	1	66	37.1
	2	59	33.1
	3	25	14.0
	4	7	3.9
	5	3	1.7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the Son Preference Scale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5 Bartlett Test of Sphericity = 366.95, Singificance = .00
---

Factor Matrix		Factor 1	Factor 2
Continue		.75	.39
Rely		.74	-.09
Sorry		.69	-.16
Bond		.67	-.27
Bearing		.66	-.61
Keep		.43	.18
OneSon		.62	.62

  

Varimax Matrix		Factor 1	Factor 2
Bearing		.89	-.02
Bond		.68	.25
Sorry		.62	.35
Rely		.61	.43
OneSon		.05	.88
Continue		.29	.79
Keep		.20	.42

  

Final Statistics				
Variable	Communality	Factor	Eigenvalue	% of variance
OneSon	.77	1	3.05	43.6%
Sorry	.51	2	1.05	15.0%
Continue	.72			Total : 58.6%
Rely	.56			
Keep	.22			
Bond	.53			
Bearing	.81			

SPS의 6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평균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방향을 가르키며 점수가 낮을수록 “동의하지 않는” 방향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진 문항은 “집안에 적어도 아들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믿는다”(X=3.82), “가문의 이름과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 아들을 두어야 한다”(X=3.63), “노년에 의탁하기 위해 아들을 두어야 한다”(X=3.16)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아들을 낳으면 결혼의 유대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X=2.92)로 나타났다. 남아 선호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가계 계승과 같은 명분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on Preference Scale<sup>1</sup>

	X	SD
Should have at least one son	3.82	1.09
Feel sorry for family with no son, but girls only	3.03	1.18
Need son to continue the family	3.63	1.18
Need son to rely in old age	3.16	1.22
Daughter keeps maiden name if no son	3.01	1.16
Son tends to strengthen a marriage bond	2.92	1.27

1. Higher scores indicate "agree" to the statements, while lower scores indicate "disagree".

Reliability Coefficients, Alpha = .78

Guttman Split-half = .66

과 아울러 노후 의지와 같은 현실적, 실리적 이유도 함께 거론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남아 선호도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첫 자녀와 둘째 자녀의 성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첫 자녀의 성 선호의 비율이 〈표 4〉에 나타나있다. 첫 자녀

〈Table 4〉 Parental Preference of the First Child by Sex

	n	%
Boy	110	54.5
Girl	23	11.4
Either sex	69	34.2

로서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이 54.5%(110명)으로서 딸을 선호하는 비율 11.4%(23명)에 비해 5배 가량 높았다. 어느 성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응답은 34.2%(69명)로 딸 선호도보다 오히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성 선호에 대한 응답이 〈표 5〉에 제시되어있다. 둘째 자녀로서 딸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44.7%(89명)로서 가장 많았고, 아들·딸 상관없다는 응답자가 31.2%(62명), 아들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24.1%(48명)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필리핀 사람들은 첫 아이로서 아들을 선호하지만 둘째 아이는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

〈Table 5〉 Parental Preference of the Second Child by Sex

	n	%
Boy	48	24.1
Girl	89	44.7
Either sex	62	31.2

리고 자녀의 성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첫 자녀의 경우 34.2%, 둘째 자녀의 경우 31.2%로서 전체 응답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녀의 성에 관한 특정한 선호가 없이 상당히 신중성 있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점 또한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필리핀이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선호하는 국가로 분류한 선행연구(Conception, 1986; Lee, 1995)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여성의 지위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상당히 높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있다고 하겠다. 필리핀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동등하므로 특히 아들을 선호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3. 남아 선호에 관련된 변인의 분석

남아 선호에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있다.

〈Table 6〉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on Preference Score

Independent Variables	b	$\beta$	T
Parental preference of 2nd child by sex	.18	.05	.57
Education	-1.22	-.14	-1.92
Family income	-.15	-.05	-.63
Parental attitude & expectation toward son & daughter	-.17	-.09	-1.23
Patriarchal attitudes	.54	.48	6.18***
Women's status	.14	.06	.75
Age	-.04	-.06	-.58
Parental preference of 1st child by sex	.84	.22	2.35*
Father's ethnic origin	-2.64	-.24	-1.74
Mother's ethnic origin	2.31	.22	1.42
(Intercept	15.93)		
R <sup>2</sup>	39.83***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로서는 연령, 교육수준, 부모의 인종, 수입 등의 인구학적 특징을 포함해서 자녀의 성 선호, 딸과 아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기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지각, 가부장적 사고 방식과 태도와 같은 10개의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분석의 결과 두 개의 변수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떠올랐고 세 번째 변수는 유의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기혼 여성의 남아 선호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는 가부장적 사고 방식과 태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T=6.18, p > .001$ ),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첫 자녀의 성 선호 변수( $T=2.35, p > .05$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남아 선호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1.92, p=.057$ )로서 유의 수준을 약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한다면,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태도가 강한 여성일수록, 그리고 첫 아이가 남아이기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여성일수록 남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10개 변수들의 남아 선호도에 대한 설명력은 39.83%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필리핀인과 중국계의 비교

필리핀 여성과 중국계 필리핀 여성을 남아선호와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인구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신봉하며 가족을 중요시 하므로 자녀의 수가 많은 편이나 자녀의 성에 따른 차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중국 본토를 비롯해서 동남아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남아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화교들의 경우 대다수가 가족을 중심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자녀 수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stello, 1981; Pong, 1994). 필리핀 여성과 중국계 여성을 비교한  $t$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녀의 성 선호도를 살펴보면 필리핀 여성들은 중국계 여성보다 둘째 아이가 딸이기를 바라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지각도 필리핀 여성이 훨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기대 측면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이 중국계에 비해 아들과 딸을 훨씬 평등하게 양육하고 동등한 기대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계 여성 집단과 비교해 볼 때 필리핀 여성들은 둘째 자녀의 성 선호가 딸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동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

〈Table 7〉 Results of t-test between Filipino<sup>1</sup> and Chinese<sup>2</sup> Groups

Variables	Mean		SD		t
	Filipino	Chinese	Filipino	Chinese	
Education	3.84	3.94	.85	.39	-1.05
Parental attitudes & Expectations	8.63	7.47	3.89	3.91	2.12*
Patriarchal attitudes	16.78	15.97	7.71	5.22	.91
Women's social position	2.97	2.73	.55	.73	2.51**
Women's family position	3.03	2.82	.49	.67	2.50**
Preference of 1st child by sex <sup>3</sup>	1.55	1.60	.74	.62	-.54
Preference of 2st child by sex <sup>3</sup>	2.33	2.04	.80	.78	2.58**
Number of children	3.28	3.30	1.31	1.28	-.14
Number of son	1.76	1.59	.94	.99	1.16
Number of daughter	1.59	1.82	.88	1.24	-1.41
Son Preference Scale items <sup>4</sup>					
OneSon	3.66	4.05	1.13	.99	-2.51**
Sorry	3.18	2.84	1.13	1.17	2.06*
Continue	3.55	3.75	1.23	1.11	-1.22
Rely	3.38	2.85	1.19	1.21	3.14**
Bond	2.90	2.95	1.36	1.13	-.29
Bearing	2.75	2.11	1.32	1.08	3.83***

\* p=.05 Note : 1. n=120

\*\* p=.01 2. n=86

\*\*\* p=.001 3. 1='boy', 2='either', 3='girl'

4. Higher scores (4 &amp; 5) indicate "agree" to the statement, while lower scores (1 &amp; 2) indicate "disagree" to the statement.

녀의 성에 따른 차별적 양육과 기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들의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 세 변수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어떠한 인과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남아 선호의 이유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을 해야 한다"는 문항과( $p > .001$ ) "노후에 의탁하기 위해 아들이 꼭 필요하다"는 문항( $p > .01$ )에 대해서 필리핀 여성들이 더 많이 동의를 했다. 반면에 "집안에 적어도 아들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

다"는 문항과( $p > .01$ ) "아들이 없으면 시집간 딸이라도 이름을 계승할 수 있다"( $p > 0.1$ )는 가계 계승과 명분을 증시하는 문항에 중국계 여성들이 더 많이 찬동을 표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중국계 필리핀인들의 명분을 기초로 하는 강한 남아 선호 사상이 재차 확인되고 있고, 반면에 필리핀 여성들은 강한 가족주의와 아울러 자녀에 대한 높은 의존심을 엿볼 수 있다.

## V. 논의와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의 남아 선호 태도를 연구한 결과, 가문의 계승이라는 명분과 함께 노후 의지라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남아 선호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첫 자녀의 성 선호는 아들이 반 수 이상(54.5%)을 차지했으나 둘째 자녀로는 딸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거의 반수(44.7%)에 이르렀다. 또한 첫 자녀와 둘째 자녀의 성 선호에 아들 딸 구별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34.2%와 31.2%를 차지했다. 즉 첫 아이로는 아들을 선호하고 둘째는 딸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고, 딸과 아들을 동등하게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3이나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아 선호가 강한 다수의 동남 아시아권의 나라와는 달리 특이하고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남아 선호도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가부장적 사고 방식과 태도, 첫 자녀로 남아 선호도가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 사고 방식과 태도를 강하게 가진 여성일수록, 첫 아이로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여성일수록 전체적인 남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필리핀인과 중국계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은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중국계 여성에 비해 필리핀 여성은 둘째 아이가 딸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높았고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필리핀 여성은 또한 아들과 딸을 훨씬 평등하게 기르고 동등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남아 선호의 이유로서 노후에 의지할 대상으로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중국계 여성은 남아 선호의 이유로 가계 계승과 명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필리핀 여성의 딸 선호, 남녀의 지위 평등, 성 차별 없는 평등한 자녀 양육이 삼박자가 되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의미심장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세 가지 변수간에 인과 관계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이 가능하며 이것이 우리사회

가 나아갈 방향이며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라고 느낀다.

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남아 선호 현상과 이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의 의식 가운데 가부장적 사고 방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구시대적인 남존여비 사상과 성 차별적인 태도를 고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누리는 많은 특권과 편의에 비교해 볼 때, 여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과 부당한 대접은 상당한 몫에 이르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겠고 이것은 남녀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성에 따른 차별적 양육과 기대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겠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 방법의 차이나 기대치가 다른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자라나는 자녀 세대에 대해 성 차별의 재생산과 확대 생산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고 오히려 아들딸에 대해 동등하고 공평한 지지와 기대치를 보여주도록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시사점은 노후 준비에 대한 것으로서 자녀 세대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하기보다 노후를 스스로 헤쳐가려는 각오와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자신의 노년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모라면 딸이나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것이며 따라서 아들딸에 대한 차별도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대도시인 메트로 마닐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언어, 가치관, 사고 방식, 가족 관계, 문화 등에서 다를 수 있다. 메트로 마닐라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를 연구에 함께 포함시키면 두 집단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더욱 포괄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

구 자료는 또한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있는 수소의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무작위로 추출된 다른 학부모와 일반인들을 포함시켰더라면 결과를 일반화해서 적용하는데 훨씬 자유로웠을 것이다.

또 다른 제한점은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와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중요한 도구로 남아 선호를 측정하기 위한 Son Preference Scale과 가부장적 사고방식/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있다. 남아 선호라는 주제의 본질적 중요성과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 도구는 후속의 연구 과정에서 개념화의 단계에서부터 도구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련되고 정교화되면 유용한 측도로 널리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 【참 고 문 헌】

- 동아일보. 중국 21C 진로. 1997. 7. 1.
- 박경애(1993). 임신부의 자녀관 : 성 선호와 임신 동기. *대한가정학회지* 31(1), 25-33.
- 박채빈·조남훈(1984). 성 선호로 인한 과잉 출생수의 추정. *인구보건논집* 4(1), 3-19.
- 이홍탁(1986). *여성사회학*. 서울 : 법문사.
- 최재석(1983). *한국 가족제도사 연구*. 서울 : 일지사.
- 통계청(1992). *199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서울 : 통계청.
- Agoncillo, T. A. & Guerrero, M.C.(1971). *History of the Filipino People*. Quezon City : R. P. Garcia Publishing Co.
- Bennett, N. G. (Ed.).(1983). *Sex Selection of Children*. New York : Academic Press.
- Cardarelli, L.(1996). The lost girls : China gender gap. *Utne Reader, M/J* 75, 13-14.
- Castelo, L. T.(1997). *This is the Philippines*. Metro Manila : M. M. Castelo.
- Castillo, G. T.(1993). *Where good and population meet : The Filipino household among other households*. Metro Manila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Chatfield, G. A.(1961). *The Philippines*. Singapore : Eastern University Press.
- Concepcion, M.B.(1986). The 1983 National Demographic Survey: An Overview. *Demography at the Crossroads*. Metro Manila: U.P. Demographic Research and Development Foundation Inc.
- Costello, M. A.(1981). Chinese Filipino fertility differences in Cagayan de Oro : Some findings from a medium-sized Philippine cit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2(2), 452-463.
- Eviota, E. U.(1988). *Woman in development : Philippines*, Country Briefing Paper. Metro Manila : Asian Development Bank.
- Goodkind, D.(1996). On substituting sex preference strategies in East Asia : Does prenatal sex selection reduce postnatal discrimin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1), 111-125.
- Israel-Sobritchea, C.(1990). The ideology of female domesticity : Its impact on the status of Filipino women. *Review of Women's Studies* 1(1), 26-41.
- Lee, S. Y.(1995). The effect of the value of children on sex preference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maica, 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i, J.(1995). China's one-child policy : How and how well has it worked : A case study of Hideo province, 1979-88,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3), 563-585.
- Newport, F.(1996). Americans still prefer a son : Desire for a boy stronger than six years ago, *The Gallup Poll monthly* 336, 2-3.
- Park, C. B, & Cho, N. H.(1995). Consequences of a son preference in a low-fertility society :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eiw* 21(1), 59-85.
- Pong, S. L.(1994). Sex preference and fertility in

- Peninsular Malaysia. *Studies in Family Planning* 25(3), 137-148.
- Poston, D. L. Jr., Gu, B., Liu, P.P., & McDaniel, T. (1997). Son preference and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 A provincial level analysis, *Social Biology* 44(102), 55-76.
- Samonte, E. L.(1989). *Status of women in the Philippines*. Manila :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Stattin, H., & Klackenberg-Larsson, I.(1991). The short-and long-term implications for parent-child relations of parents' prenatal preferences for their child's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141-147.
- Teichman, Y., Rabinovitz, Y., & Rabinovitz, D.(1992). Gender preferences of pregnant women and emotional reaction to information regarding fetal gender and postpartum : An examination of Freud's view about motivation for motherhood. *Sex Roles : a Journal of Research* 26 (5-6), 175-195.
- Unger, J. B., & Molina, G. B.(1997). Desired family size and son preference among Hispanic women of low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9(6), 284-287.
- Williamson, N, E,(1976). *Sons or Daughters : A Cross-Cultural Survey of Parental Preferences*. Beverly Hills : Sage.